

타투, 해 말어? 문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크리스찬과 타투 그 불편한 관계

크리스찬에게 타투(tattoo·문신)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미 가벼운 문신은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된지 오래다. 그래서 고민 또한 늘고 있다. 문신이 일반적이지 않은 때에 그것을 접할 기회조차 많지 않으니 크게 신경쓸 일이 없지만, 그것이 주변을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를 주변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8절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전하고 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즉 문신을 해선 안 된다는 뜻이어서 기독교 내에선 문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그야말로 '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이 구절 중 앞 부분에 해당하는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이 문신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그렇지 않은 문신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된다 안 된다"식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기에 앞서 그 동기와 그것이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제안한다.

한 구약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레위기의 해당 구절은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문신으로 확대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나친 문신 역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목회자는 "가끔 그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한다"며 "문신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은 아마 그것을 종교적 행위와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일텐데, 모든 문신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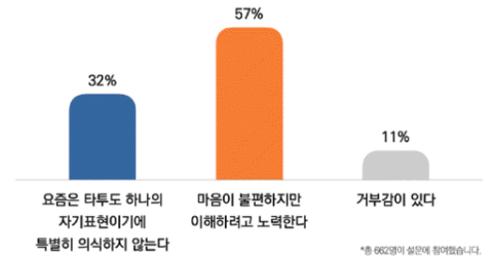
미국의 한 유명 목회자도 얼마 전 이 문제에 대해 "구약시대의 금지법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며 "구약시대의 법이 오늘날까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은 왜 문신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문신을 새기려고 고려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가진 속성을 잘 생각하면서, 비기독교적이거나 저속한 어떤 것을 전달하지 않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도가 문신하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의 생각은?

목회데이터연구소, 622명 대상 설문조사



자신의 교회 성도가 문신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목회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

목회데이터연구소(목회연)는 목회자 66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목회자 과반(57%)은 성도의 문신에 대해 '마음의 불편함은 있으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연은 "주목할 점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정하며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2%에 달해, 목회 현장에서 문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반면, 명확히 '거부감이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쳐, 전반적으로 '이해와 수용'의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말씀의 초대 | 롬 2장 1-6절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박광수 선교사
서남아시아지역총장

위대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잊혀진 것 같고, 무명인 사람처럼,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빠져나오기 힘든 아주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까? 그 두렵고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아주 밝은 빛으로 터널 속을 비추시며 밖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2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 아주 잘 생겼다고 했습니다. 단지 모세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를 관찰하였습니다. 잘 살펴보았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만 그를 본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보니 아주 잘 생겼습니다. "잘 생겼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훌륭하다, 사랑스럽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살기가 등등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 모세를 보시고 먼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킬 영적 거장 모세로 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 어려움에 처해 신음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6절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단순히 허를 찌며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바로의 딸 하셉수트 공주가 갈대 상사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 양자 삼아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애굽 공주로서 모세를 양자 삼는 데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헤세드 사랑을 하나님이 애굽 공주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헤세드'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자 예수님이 땅에 대속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헤세드' 사랑으로 이기고 정복해야 합니다. 이 헤세드 사랑이 열방의 복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일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의 힘입니다.

저희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인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와서 '헤세드'의 사랑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중 세움]의 사역으로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1) 인도 목회자들을 말씀의 용사로 세우는 [인도목회대학원 사역] (2) 인도 가정들 말씀으로 치료하여 열방의 복으로 세우는 [로말페밀리 가정 사역] (3)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백천만 비전 사역] (4) 인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다니엘 장학 사역] 등입니다.

이 [사중 세움] 사역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22년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성 동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헤세드' 사랑이 인도 땅까지 흘러넘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확장되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성 동역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목회 현장 속에 이 위대한 헤세드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심장으로 축복합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기독 선수 파송

한국올림픽선교회, 선수단 위해 기원 예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올림픽선교회가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다.

한국올림픽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 선교회는 지난달 28일 총회 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교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파송 및 필승 기원 감사예배'를 열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

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이날 선교회는 '경기장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선수는 그곳에 파송된 복음의 증인'이라는 의미를 담은 기독 국가대표 선수들을 현지 단기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밝혔다. 선수들을 대신해 파송패를 전달받은 김택수 선수장은 "모든 선수가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경기에 임하고, 결과를 넘어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지난 2일 이탈리아로 출국해 밀라노 선수촌 내

종교관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칠합니다
타 업체와 비교 견적 받으시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 최근 공사
 - 총회본부 건물
 - 경인지역 초·중·고교 35개 학교
- 기타
 - 문래동교회 19개 개척교회 무료공사
 - 가정집·사무실·방수공사 전문
 - 친환경 페인트 사용

대표 이진왕 명예장로
문래동교회

미교페인트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56 / 전화: 010-7668-0882